

8. 승니(僧尼) 결혼 주장

방종과 민폐여서는 안 된다

요즘 가톨릭 쪽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핫이슈는 신부님들의 결혼문제이다. 가톨릭 성직자의 결혼문제가 논란의 주제가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보인다. 빈번히 발생하는 성직자의 성추행 사건, 은처와 그 자식들의 문제, 성직 지원자의 급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성경에는 성문제에 있어 자유롭다. 가톨릭이 독신주의로 흐른 데는 4-5세기 당시 유행했던 신플라톤 철학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한다. 그 주요한 이론을 주장한 성직자가 오귀스탱 성인인데, 그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가 성생활과 결혼을 통해 유전한다고 주장하여 독신주의의 선구자가 됐다.

가톨릭 성추행 사건이 나올 때마다 여론은 성직자의 독신에서 비롯됨을 지적해 독신주의가 정착한 12세기부터 가톨릭 성직자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벨기에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가톨릭 성직자의 결혼지침율이 70%를 넘는다.

또한 성직자의 감춰진 아내들은 세상에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이들 사이에서 생긴 아이들도 항상 남의 눈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 1996년에 음지에 놓여 있는 이들 신부 아내의 일부가 양자를 뜻하는 'Day Lights' 라는 협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이 협회를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양성화하고 성직자들의 독신을 철폐하겠다는 두 가지 소망을 이루겠다고 나섰다.

독신으로 인한 성직자의 감소 추세를 보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린 1962-1965년 전세계에서 9만 여 사제들이(프랑스 사제는 1만여 명) 결혼을 위해 사제직을 벗었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다. 사제직을 원하는 젊은이들도 점점 줄고 있다. 50년 전에는 프랑스에서 한 해에 1만여 명의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1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한 해 새로 사제직에 임명된 자의 수가 90명에 불과했다. 당연히 사제 수가 부족해 외국에서 사제를 수입해오는 이변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는 다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분히 독신 때문이라고 여론에선 대답한다.

독신주의를 고집할 것인가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은 교리적인 면에서나 양성화 정도를 보면



만해 스님의 진영.

선가의 심계는 허명이니 걸림 없는 것 <禪家> <心戒> 출가자 감소 따른 대안 말할 때 됐다

독신을 고집하는 대한불교 조계종보다는 유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전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는 1993년 7월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독신이 성직에 있어 핵심은 아니다. 독신을 예수께서 예기한 범처럼 공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는 교인의 육체적 성생활을 장려하기도 했다.

가톨릭은 이제 성직자의 독신문제가 공론화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현재 교황의 보수적 성향으로 보아 당장은 힘들더라도 독신주의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다시 음성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만해 스님은 독신주의인 조계종에서 그 보살행과는 무관하게 많이도 소외된 스님이다. 그 이유는 승니의 결혼 허용 주장 때문이고, 실제 만해 스님은 결혼을 하고 자식도 됐다. 만해 스님

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승니의 결혼 주장’을 한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필자는 이것을 ‘조선불교유신론’에 나타난 만해의 계율관’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다시 생각해야 할 지점들도 있다. 앞에서 말한 가톨릭의 문제가 조계종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가에 대해 성찰하고 그 대안을 말할 때는 아닌지, 아니 유지 발전을 위해 시급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때문이다.

만해 스님은 승니의 결혼 이유를 네 가지로 들었다. 첫째로 유교적 가정윤리인 자손이 없어 제사를 모시지 못하므로 조상들께 불효를 저지름이다. 둘째, 식민제국주의 시대에 인구는 국가 부강에 주요 자원임으로 불충을 저지름이라는 것. 셋째, 승려들이 결혼 때문에 속회하는 숫자가 날로 증가해 불교 유지와 포교에 심각할 정도라는 점을 들었다. 넷째로는 식육과 색욕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금육만을 강조해 어떻게 대중교화를 할 수 있겠는가 이유였다.

현재 사회에서는 다산을 적극적 권장하고 있다. ‘아이낳기운동본부’도 생겼다. 출가자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사회·경제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한다. 현대의 추세는 금육보다는 지나칠

정도라 할 속도로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

만해 스님은 비구·비구니 모두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각자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 만해 스님의 승니 결혼 주장을 현대에 적용시키려면 수행을 겸비한 재가자의 역할은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신수행자의 자급자족하는 사찰 수도원 공동체 또한 증가할 것이다.

만해 스님의 말씀대로 선가(禪家)의 심계(心戒)는 이름과 제도도 허명(虛名)이어서 불살생계에도 걸림이 없는 것 아닌가. 방종과 민폐가 아닌 활발한 대자유인의 자비와 사랑에 경계가 있겠는가!



정명 스님

공주 나눔명상원 원장

백담사와 만해기념관

백담사에서 ‘유신론’ ‘님의 침묵’ 탄생

만해기념관·추모시비·흉상 등 만날 수 있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는 8km이다. 가을이면 20리 백담계곡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바다를 이룬다. 굽이마다 펼쳐진 울긋불긋한 단풍 물결은 넘실대며 일렁이는 빛의 향연이다. 아니, 그것은 은빛 물결이 아닌 뜨거운 불길이다. 나무도 불타고 바위도 불타고 물도 불타고 산과 계곡이 붉게 물든다.

용대리에서 백담사로 오르는 마늘버스를 타면 계곡의 한 굽이를 돌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온다. 단풍에 물든 원색의 파도가 함성을 지르듯 사방에서 몸서리친다. 기암괴석 사이의 계곡물은 졸졸 속삭이다가 큰 함성을 지르기를 반복하며 흘러내린다.

만해 스님은 신선이 살았을 법한 백담계곡의 개울들을 바닷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절벽절벽 걸어서 건너 백담사에 올랐으리라.

백담사는 만해 스님이 출가해 처음으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곳이다. 만해 스님은 이곳 백담사에서 일본강점기 불교계에 장군 죽비를 내리친 것과 같았던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했다. 한국문화사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님의 침묵>을 쓴 곳이기도 하다.

만해 스님은 겨레의 설움과 아픔을 다정다감한 시어로 어루만져준 민중시인이었다.

“사람은 많으나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니라. 의리를 저버리고 지조가 변한 사람은 의식 불구자요, 자주 정신을 망각

하고 민족을 반역한 사람은 개만도 될 수 없다.”

만해 스님은 출가한 이듬해인 1905년 11월 백담사에서 연곡 화상으로부터 계를 받았다. 처음 출가 삭발하면 사미승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나이가 지긋했고, 경전 등을 두루 섭렵해 지식이 많았던 만해 스님은 비구계를 바로 수지할 수 있었다.

립과 겨레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바쳤던 스님에게 돌아온 것은 가난과 고독, 필박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영혼만은 영원불멸로 이어진다. 만해 스님의 부처요, 중생이었던 ‘님’에 의해서.

백담사 일주문에 들어서면 오른편에 만해기념관을 만날 수 있다. 기념관에는 <조선불교유신론> <님의 침묵> <불교대전> 등 만해 스



백담사 경내의 만해기념관에는 오늘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뒤 스님은 외금강 신계사로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서진하 대사를 찾아가 교학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 오세암에 머물며 웅장진했다.

백담사에서 1910년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한 스님은 통도사에서는 <불교대전>을 발간하고 명찰순례에 나섰다. 31본사 주지회의에 참석해서는 혼혈살인의 기지로 변절한 주지스님들에게 준엄한 꾸짖음을 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똥입니다. 똥! 그런데 똥보다 더 더러운 건 무엇일까요?... 송장 찌는게 똥보다도 더 더럽더군요. 왜냐하면 똥 앞에선 음식을 먹을 수 있어도 송장 찌는 옆에선 도저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으니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31본사 주지 네놈들이다!”

만해 스님은 일제에 정신을 팔아 먹은 변절자들에게 추상같은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나라의 자주독

님의 작품 원본 10여 권과 친필 등 100여 점의 유물이 전시 중이다. 만해 스님을 연구한 논문 작품 등 700여 점도 만날 수 있다.

기념관 언저리에는 1991년 6월 29일 만해 스님의 입적 47주기를 맞아 세워진 스님의 흉상과 시 ‘나룻배와 행인’ ‘오도송’을 새긴 추모시비를 볼 수 있다.

만해 스님은 47세 되던 1925년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탈고했다. <조선불교유신론>이 백담사에 한국불교의 정신적 혁명의 사찰로 만들었다면, <님의 침묵>은 백담사를 가장 아름다운 서정적 사찰로 남게 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만해 스님의 시 ‘님의 침묵’을 읊는 순간 누구나 시인이 된다.

백담계곡에는 백담사를 찾아 만해를 닮아 시인이 된 사람들의 소원이 담으로 빼곡하다.

조동섭 기자

글 쓰는 순서.....

1. 만해와 '조선불교유신론'
2. 수행
3. 포교
4. 중단 및 사찰운영
5. 신행
6. 교육
7. 계율
8. 승니의 결혼 주장
9. 소설-만해 스님
10. 만해와 오늘의 불교

기현스님 사경수행 30년의 결실

沙門奇玄影跡展

華嚴經 / 法華經書法展

※ 화엄경·법화경 전문을 사경으로 서예 작품화 하였습니다.

전시기간 _ 2010. 9. 29水 ~ 10. 5火

전시장소 _ 인사동 한국미술관 전관

초대일시 _ 2010. 9. 29水 오후 4시

문의 : 보타암 031-772-0108 / 연락처 010-5442-3838

※ 화환·화보는 전시장 사정으로 정중히 사양합니다.

주최·주관 _ 기현영적전 추진위원회

후원 _ 대한불교 조계종 중무원 BBS 불교방송 불교TV 佛敎新聞 법화정사 흥원사 가보정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 대일빌딩 2F
Tel. 02-720-1161~2